

# 고창군, 2년치 국가예산사업 발굴

농산업혁신벨트조성 등 107건  
2026~27년 추진 5893억 규모  
시급성·연계 가능성 등 논의



지난 13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2026·27년 국가예산 3차 발굴 보고회'에서 심덕섭 군수가 보고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2026년과 2027년 추진할 5893억원 규모 107건의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했다. 당장 내년에 추진한 사업만 3984억원 규모 74건이다.

고창군은 지난 13일 고창군청에서 심덕섭 군수 주재로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란 비전 실현을 목표로 '2026·27년 국가예산 3차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발굴된 5893억원 규모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고창군 행복동지센터 조성 ▲농산업혁신벨트조성사업 ▲운곡 에코리언 어드벤처 조성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무형유산 통합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등이다.

군은 부처 업무보고 및 국고보조사업 편람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 동향 등을 파악해 신규사업을 찾아냈다.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처 설득 논리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군은 매년 3~5월까지 부처 예산편성 작업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1월부터 부처를 조기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군은 3차까지 발굴된 사업에 대해 우선 이달 말까지 부처 일제 출장을 통해 사업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상초유 감액예산안 국회의결로 국회단계에서 미반영된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윤준병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조해 대응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비전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군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위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사고 피해 시민 생활안정 지원

'시민안전보험' 시행...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보장

남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외국인 포함 시민이며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 제한항목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 금 20만원(4주), 40만원(6주), 70만원(8주 이상) 등으로 총 22개 항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다른 지역에서 당한 사고까지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또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후 3년 이내 라면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안전재난과에 문의하거나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며 좋겠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청년정책 지원' 정책협의체 발대

22명 위원에 위촉장...2년간 청년정책 제안·발굴

고창군이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 및 정기총회를 열고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청년 대표로 구성된 22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위원들은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청년친화도시 고창'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약속문을 낭독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이어 위원장 선출 및 위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는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지난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직장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 동안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문제를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제안·발굴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오는 9월 청년행사 및 활동보고회를 개최해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청년이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고창군 청년의 대표로서 청년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영유아 가정에 농산물 제공하고 농가 소득 올리고

정읍시 '농식품바우처 지원' 3월~12월 시행...행정복지센터 신청

정읍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17일부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업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신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를 대상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동시에 동시에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까지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고 관내 지정 농산물판매

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식품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의회 자치위, 주요 업무보고 심사

새 캐릭터 개발 위해 정읍 상징 쌍화탕·동학 등 활용 제안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2025년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들은 분야별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석환 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읍시 캐릭터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읍을 상징하는 구절초, 쌍화탕, 동학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오승현 부위원장은 시민참여 정책제안 사업의 대상을 생활인구와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하여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범 위원은 "예산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성과 분석 강화를 당부했으며 이복형 위원은 위치주적 차매목걸이 사업의 모든 차매환자 대상 확대와 인식개선 사업 병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혜숙 위원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행을 요청했다.

이어 이만재 위원은 국가예산 확보 미반영 사업의 증가를 지적하며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주문했고, 한선미 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의 정읍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성환 위원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학이나 수제천 등 정읍의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안전 심사를 진행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춘향제' 홍보 아이디어 찾아요

4월 30일~5월 6일 공모전 영상·웹툰·자유부문 이달까지 접수

남원시가 가장 오래된 전통축제인 '춘향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홍보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광한루원 및 요천면 일원에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란 주제로 열리는 '제95회 춘향제'의 홍보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모는 영상과 웹툰, 자유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중복 응모는 가능하지만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영상과 웹툰은 춘향제를 홍보하기 위한 완성된 디자인이나 영상,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해 제출해야 하며 자유부문은 제안, 아이디어, 캐릭터 개발 등 자유형식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서도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응모작에 대한 전문심사는 창의성, 기획·완성도, 활용가능성, 주제 적합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진행되며 수상작은 모두 33팀이 선정된다.

총상금은 1000만원, 대상은 3개 부문 통합 1팀을 선정해 200만원의 상금과 남원시장을 수여하고 최우수상은 각 부문에서 총 3팀에게 100만원씩의 상금과 남원춘향제정위원장을 수여한다. 이외 부문별 우수상과 장려상, 참가상 등이 있다.

수상작은 3월 10일 개별통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작은 춘향제 홍보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게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